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찬양해요

찬송가 185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사도행전 1:1-11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 이해하기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동료이자 의사인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는 먼저 누가복음을 썼고, 그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두 책을 헌정 받은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미리 예고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3절).

오늘 가정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중요한 일을 살펴 보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되어 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만나서 무엇을 당부하셨습니다니까(4-5절)?

▶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 14:16을 읽어보세요.

2.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6-8절)?

▶ 그들은 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까지 가서 예수님의 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그들 곁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들려주었습니까?

4.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5.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증인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좋은 증인이 될 것인지 가족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귀하신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